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3월 4주 ~ 3월 5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폴란드, 1월 무역수지 6억 유로 흑자 기록(3.13)
 - 폴란드 통계청(GUS), 2026년 1월 무역수지 약 6억 유로 흑자 기록 발표
 - 같은 기간 수출은 285억 유로, 수입은 279억 유로로 집계되며 수출이 수입을 상회
 -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.1%, 수입은 8.6% 각각 감소하여 전반적인 교역 규모는 축소
 -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, 체코, 프랑스 순이며, 주요 수입국은 독일, 중국, 미국 순으로 나타남
 - 2025년 연간 기준 약 77억 유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, 2026년 들어 흑자로 전환
 -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면서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
- 폴란드, 2월 실업률 6.1%로 소폭 상승(3.24)
 - 폴란드 통계청(GUS), 2026년 2월 실업률 6.1%로 발표, 전월 6.0% 대비 0.1%p 상승
 - 실업자 수는 약 954,900명으로 집계되며, 1월 934,100명 대비 증가
 - 해당 수치는 노동부의 사전 추정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
 - 2026년 2월 기준 기업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0.8% 감소하여 고용시장 둔화 흐름 시사
 - 한편, 다른 산정 방식을 가진 Eurostat 기준, 폴란드 2026년 1월 실업률은 3.1%로, EU 27개국 중 최저 수준 유지
 - 전반적으로 계절적 요인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단기적 실업 증가세

나타난 것으로 분석됨

○ Moody's, 폴란드 신용등급 'A2', 전망 부정적 유지(3.25)

- Moody's, 폴란드 신용등급 정기 검토 결과 등급 'A2' 유지, 전망은 부정적(Negative)으로 발표하며 단기 내 등급 상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
- 부정적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재정 전망 악화, 정부-대통령 간 정책 교착, 2027년 총선 전후 정부 지출 확대 가능성, 공공부채 증가 및 재정 지속성 지표 악화 위험 등을 지적
- 등급 안정화 요건으로는 신뢰 가능한 재정건전화 경로 설정, 공공부채 증가 속도 완화, 사법부 독립 회복 및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경제 잠재력 확대 필요성 제시
- 등급 하락 위험 요인으로 공공부채 부담 증가 및 부채 상환능력 약화, NATO-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지역 안보 리스크, 미국의 유럽 안보 보증 역할 약화 가능성 등을 언급
- 경제지표 측면에서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3.7%로 상향(기존 3.2%), 2027년은 EU 회복기금(RRF) 효과 약화 및 소비 둔화 영향으로 3.0%로 둔화 예상됨
- 재정적자는 2026년 GDP 대비 6.6%, 2027년 5.9%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 전망, 공공부채 비율은 2024년 55%, 2027년 68%, 2030년대 후반에는 70% 이상으로 상승 예상
- 주요 리스크로 대통령의 SAFE 거부권 행사에 따른 EU 자금(약 437억 유로) 집행 지연 가능성과 정부-대통령 간 정책 교착 및 선거 전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지목
- 주요 신용등급 비교 시 Moody's는 A2(부정적), Fitch는 A-(부정적), S&P는 A-(안정적)으로 Moody's가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
- Moody's는 폴란드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와 EU 자금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정 건전성과 성장 잠재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2025년 키이우 쇼핑몰 공실률 12.8%로 소폭 개선(3.20)

- 우 부동산 컨설팅 기업 UTG에 따르면 2025년 키이우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의 평균 공실률은 12.8%로 전년 대비 0.3%p 하락
- 미운영 시설 포함 시 평균 공실률은 약 13% 수준으로,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 지속
- 전쟁, 엔터테인먼트 업종 투자 지연 및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공실률 하방 압력 상존
- 신규 쇼핑몰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 공실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으나, 진출을 보류했던 글로벌·지역 브랜드의 시장 복귀 움직임 확인
- 2027년 공실률은 약 11.5% 수준까지 추가 개선 전망
- 대형 쇼핑몰 중심으로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, 주요 사례로 Blockbuster Mall, Promenada Center, Marmelad, Atmosfera 등 재구성·리모델링 진행 시설 포함
- 대형 점포를 채울 핵심 임차인의 부족이 주요 공실 요인으로 지목되며, 향후 브랜드 유입 여부가 시장 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

○ 우, 50% 법인세 재도입 영향으로 은행 순이익 1/3 감소(3.25)

- 2026년 1~2월 우크라이나 은행권 순이익은 전년 대비 36.4% 감소한 177억 흐리우냐(약 6,134억 원)로, 지난 9년간 세 번째로 큰 감소폭 기록
- 같은 기간 은행 수익은 20.5% 증가해 1,058억 흐리우냐(약 3.67조원) 기록, 그러나 비용 상승 폭도 47.1%에 달하며 880억 흐리우냐(약 3.05조원)로 사상 최대 수준
- 순이익 감소의 주원인은 주요 비용 급증으로 지목, 2개월간 세금 납부액 173억 흐리우냐(전년 대비 161% 증가), 대손충당금 적립액 57억 흐리우냐(468% 증가) 기록

- 2025년 말 통과된 법률에 따라 2026년 은행 소득세율은 25%에서 50%로 상향 조정, 과거 손실 공제 제한 포함
 - 재무부 추정, 해당 법인세 조치로 2026년 국가 예산에 150~230억 흐리우냐 추가 수입 발생 가능
 - 국회 세제위원회장 헤트만체프는, 2027년에도 높은 세율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언급
 - 전반적으로,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금 및 대손충당금 부담 확대가 은행 순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- 우 2026년 초 GDP 1.2% 감소, 전쟁·에너지 차질로 경기 위축(3.27)
- 우크라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~2월 GDP가 전년 대비 1.2% 감소하며 연초 경제 상황이 “매우 어려운 수준”에 직면
 - 감소 배경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심화,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기업 생산 중단, 한파 등 계절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
 - 특히 전력 공급, 광업, 철강, 운송 등 주요 산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으며 전반적인 산업 활동 위축
 - 2025년 연간 GDP는 1.8% 성장했으나,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리스크로 2026년 초 경기 하방 압력 확대
 - 다만 일부 긍정적 신호도 존재, 1월 내수 거래 13% 증가, 건설업 3% 성장, 제조업 생산 확대 등 일부 부문은 회복세 유지
 - 우 중앙은행은 2월 기업 경기 기대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회복 가능성 시사
 - 정부는 기온이 상승하고 에너지 공급 안정 시 경제 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며 경제 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
 - 2026년 성장률 전망은 기관별로 상이, 우 중앙은행은 1.8%, EBRD는 전쟁 지속 시 2.5%, 종전 시 2027년 4.0% 성장 전망
 - 종합적으로 전쟁 및 에너지 인프라 리스크가 단기 경기의 핵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기상 여건·에너지 안정 여부가 회복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PKP PLK, 10억 즈워티 규모 철도 현대화 입찰 재평가 결정(3.13)

- 폴 철도공사 PKP PLK는 차호베크 브스호드니(Czachówek Wschodni) - 필라바(Pilawa)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 입찰 절차를 무효화하고 재평가하기로 결정
- 해당 사업은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한 철도 인프라 개량 프로젝트로 총 사업 규모가 약 11억 즈워티(약 10억 즈워티 이상)에 달하는 대형 철도 투자
- 당초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Budimex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되면서 발주처가 입찰 제안서를 다시 심사·평가할 예정
- Budimex 컨소시엄은 Budimex SA(지분 90%), Budimex Kolejnictwo SA(5%), Mostostal Kraków(5%)로 구성됐으며, 제안 금액은 약 1090백만 즈워티 수준
- 본 프로젝트는 철도 선로, 전차선, 열차 제어 시스템 등을 현대화하여 여객·화물 열차 운행 속도를 최대 120km/h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
- 특히 Góra Kalwaria 지역 비스와강(Vistula) 철도교 신설이 핵심 사업으로, 기존 단선 철도교를 복선 구조로 교체해 운행 용량을 확대할 계획
- 해당 노선은 스키에르니에비체(Skierniewice) - 우쿠프(Łuków) 구간을 연결하는 바르샤바 화물 우회 철도망의 일부로, 화물 물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
- 이번 입찰에는 총 9개 기업·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, 입찰 절차 재검토 이후 최종 사업자 선정이 다시 진행될 예정
- 이번 결정은 대형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입찰 절차 투명성 확보와 사업 조건 재검증 과정으로 평가됨

○ 폴란드 ELQ,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 투자 본격 추진(3.15)

- 폴 에너지 장비 기업 ELQ는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재건 시장 선점을

위해 태양광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소형모듈원자로(SMR) 등 복합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추진

- ELQ는 2026년 상반기부터 우크라이나 내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 시스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, 전쟁 종식 이전 단계부터 시장 진입을 추진
 - 회사는 총 2GW 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, 약 25억 유로 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, 이 중 14개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 준비 단계에 진입
 - 투자 구조는 자기자본 10%, 국제금융기관 60%, 민간 투자자 30%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, 미국 및 중동 지역 기업들이 공동 투자 파트너로 관심 표명
 -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피해 규모가 커 재건 수요가 막대한 상황으로, 세계은행·EU·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건 비용 약 5,880억 달러, 이 중 에너지 부문 약 9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
 - ELQ는 태양광과 ESS 외에도 바이오가스, 데이터센터 연계 에너지 공급, 소형 모듈원자로(SMR) 등을 포함한 통합 에너지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
 - 특히 체코 기업 Witkowitz의 기술을 기반으로 출력 50MW(열출력 175MW) 규모 SMR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며, 2030년대 초 상업 운전 개시 목표
 - 회사는 폴란드 Częstochowa에 연간 5,000기 생산 규모 변전소 설비 공장 확장을 추진하며,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생산 라인도 구축 계획
 -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기업과 협력해 폴란드 내 드론 생산 사업 진출도 추진하며 에너지·방산 복합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
 - 한편 EBRD는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EU·세계은행과 공동 추진 중
 - 이번 투자 전략은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 시장 선점을 노리는 민간 기업의 선제적 진출 사례로, 향후 재생에너지·에너지저장·소형 원전 등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재건 모델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- 폴란드, A4 고속도로 3차로 확장 추진 및 설계용역 입찰 공고(3.16)
- 폴 국가도로청(GDDKiA), A4 고속도로 Dulowa - Balice 구간(약 24km) 3차로 확장을 위한 설계·기술 문서 작성 용역 입찰 공고

- 실레지아주 Brzęczkowice - Buczyna 구간에 이어 추가 구간 입찰로, 오폴레주 경계부터 카토비체를 거쳐 크라쿠프까지 총 약 120km 구간 확장
 - 사업은 기존 중앙분리대(녹지 공간)를 활용해 차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, 별도 부지 확보 없이 도로 내측 확장 추진
 - 교통량 증가(일평균 5만 대 이상)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주요 추진 배경
 - 해당 구간은 현재 민간사업자(Stalexport Autostrada Małopolska)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로, 1997년 체결된 30년 PPP(민관협력) 방식으로 건설·운영
 - 해당 운영권은 2027년 3월 15일 만료 예정이며, 폴 국가도로청(GDDKiA)로 환원할 계획
 - 운영권 종료 후 3.5톤 이하 승용차 대상 통행료는 면제될 예정으로, 이용자 비용 부담 완화 기대
 - 폴란드는 2023년 7월 이후 GDDKiA 관리 고속도로(A2 일부, A4 일부)에 대해 승용차 통행료를 폐지한 바 있음
 - 이번 확장 사업은 교통 혼잡 완화,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주요 산업·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폴, 우치(Łódź) 도심 관통 철도터널 건설 재개 계획 및 새 시공사 선정 절차(3.17)
- 우치 도심 관통 터널은 총 길이 7.5km로, 우치 Fabryczna 역과 Kaliska·Żabieniec를 연결하는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
 - 2017년 계약 체결 후 2019년 8월 공사 시작, 당초 2021년 완공 예정이었으나, 역 추가와 설계 변경으로 2026년 6월 완공 계획으로 연기
 - 2024년 9월 1 Maja 거리 인근 건물 일부 붕괴로 터널 공사가 중단되었으며, 약 250명 주민이 임시 거주지(호텔·임대주택)에서 생활, 이전 계약사 PBDiM이 월 약 200만 즈워티의 거주 비용 부담
 - 2025년 2월 PKP PLK, 주민 안전과 주변 부동산 보호, 전문적 인프라 시공 확보를 이유로 PBDiM과 기존 계약 종료
 - PKP PLK는 기술적 대화에 참여할 5개 기업 선정, 이후 3개 기업을

최종 후보로 좁혀, 3~4분기 내 현장 진입할 시공사를 확정할 예정

- 기술적 대화 선정기업에는 PORR(우치 고속철 터널 경험), Gülermak (바르샤바 지하철 및 Podłęże-Piekielko 터널 시공 경험) 포함
- 계약 조건은 최종 설계 확정 후 수립되며, 3개 최종 후보 중에서 시공사 선정 완료 후 현장 진입 및 공사 재개 예정
- 프로젝트 완료 시 우치 도심 철도 연결망 완성, 국가 철도망 안정성 강화, 주민 및 도시 안전 확보
- 이번 프로젝트 재개는 안전과 전문적 시공을 전제로 한 절차로, 우치 도심 핵심 철도 인프라 복원과 장기적 교통 효율성 증대,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

○ Orlen, 250백만 달러 규모 채권 유럽 시장 상장(3.18)

- Orlen은 1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 프로그램을 등록했으며, 이 중 250백만 달러(1,250채) 발행분이 Euronext Dublin 규제시장 상장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
- 채권 발행 조건은 ▲발행가 103.718% ▲만기 2035년 1월 30일 ▲연 6% 고정금리
- 해당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, 회사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
- 조달 자금은 운영자금 및 중장기 투자계획인 'Orlen 2035 전략' 이행에 활용 예정
- Orlen 2035 전략은 최대 3,800억 즈워티 규모 투자로 폴란드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 목표
- 투자 분야는 ▲정유·석유화학 ▲석유·가스 탐사 ▲재생에너지 ▲전력 ▲SMR(소형모듈원자로) 등 에너지 전반
- Orlen은 폴란드·체코·리투아니아 정유시설과 독일·슬로바키아·헝가리·오스트리아 주유망을 보유한 중동부 유럽 대표 멀티에너지 기업
- 이번 채권 발행은 대규모 에너지 전환 투자 재원 확보 및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 차원으로 평가
- Orlen은 채권시장 조달을 통해 장기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, 에너지

전환 및 안보 강화 전략을 가속화하는 재무 전략을 추진 중으로 분석됨

○ Stellantis, 폴에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 산업용 태양광 프로젝트 구축(3.18)

- Stellantis는 폴란드 내 생산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태양광 발전단지(PV)를 구축
- 프로젝트는 글리비체·티히·스코추프 등 4개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하며, 총 설치용량은 약 58MW 수준
- 태양광 설비는 약 54헥타르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, 일부는 주차장 상부에 설치되는 '카포트(carport)' 형태로 구축
- 카포트 설비만 약 7MW 규모로, 기존 산업부지 활용도를 높이면서 추가 토지 사용을 최소화
- 생산된 전력은 공장 자체 소비용으로 사용되어 외부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기대
- 프로젝트 완료 시 일부 공장은 연간 에너지 수요의 절반 이상을 자체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
- 해당 투자에는 에너지저장장치(BESS) 구축도 포함되어 전력 공급 안정성 강화
- Stellantis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략(2038년 목표)의 일환으로,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뿐 아니라 전기차·하이브리드차 생산 확대와 연계해 전반적인 ESG 경쟁력 강화 추진
- 종합적으로 본 투자는 자동차 제조기업이 자체 전력 생산 기반 확보, 탄소배출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산업형 에너지 전환 사례로 평가됨

○ 폴란드, 향후 10년간 에너지 분야 1조 즈워티 투자 계획 발표(3.18)

- 투스크 총리는 향후 10년간 에너지·인프라·송전망·발전설비 등에 총 1조 즈워티 규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
- 투자 구성은 ▲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약 2,200억 즈워티 ▲전력 배전망 약 2,340억 즈워티 ▲원자력 약 1,600억 즈워티 등으로 구성
-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,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강조

-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, 원전 건설, 소형모듈원자로(SMR) 개발, 송전망 현대화 등 첨단 에너지 기술 중심
- 포모제 지역 원전 건설, 자르노비에츠 인근 대규모 배터리 저장시설, 해상 풍력단지 및 정유·항만 인프라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
- 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생산 시설 확대 계획
- 정책 목표는 ▲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 ▲전력 가격 인하 ▲에너지 자립도 강화
- 폴란드는 이탈리아·벨기에·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EU 집행위원회에 산업용 무상 배출권(ETS) 유지 요청
- EU 기후정책에 대해 회원국별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조정 추진
- 동시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탈피 기조를 유지하고, 신뢰 가능한 국가 중심의 에너지 협력 강화 방침
- 에너지 전환을 비용 부담이 아닌 가격 안정 및 공급 다변화 기회로 평가
-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약 20만 명 이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확인
- Tauron, Enea, Orlen, PGE 등 국유·상장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 병행 추진하며, '로컬 콘텐츠' 확대를 통해 폴란드 기업 참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유도
- SMR·대형 원전·가스발전 설비 투자도 병행되며 주요 프로젝트는 이미 착수 단계
- 본 계획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전략으로, 산업 경쟁력·고용·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평가됨

○ **Grupa Azoty, Andrzej Rzońca 재무전략 고문 선임(3.18)**

- 폴 국영 화학기업 Grupa Azoty, 경제학자 Andrzej Rzońca를 재무전략 고문으로 선임하며 구조조정 및 재무 안정화 본격 추진
- 이번 인사는 단순 자문 차원을 넘어, 그룹 최대 리스크 요인인 GA Polyolefins(Polimery Police 프로젝트)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
- 해당 프로젝트는 총 투자비 약 70억 즈워티 규모의 폴리프로필렌

생산 프로젝트로, 현재 미완공·가동 중단 상태에서 분기당 약 1억
즈워티 손실 발생

- 프로젝트 관련 부채는 약 40억 즈워티 이상으로, 금융기관이 즉시 상환을
요구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 심화
 - 실제로 회사는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으며,
약 60억 즈워티 규모 채무 재조정 협상이 진행 중
 - 은행 채권 회수(수천만 유로 규모) 및 자산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그룹
전체 재무에도 직접적인 부담 발생
 - 이에 따라 Orlen의 인수(약 10억 즈워티 규모) 또한 채무 재조정이 선행
되지 않으면 성사 불가능한 상황
 - 이러한 상황에서 Rzońca는 통화정책위원회(RPP) 위원 출신으로 금융
시스템·부채조정·거시경제 대응 경험을 보유
 - 또한 PGE 감독이사회 이사로서 대규모 에너지·산업 투자 프로젝트 및
공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이해도 확보
 - 특히 다수 채권자(은행·공공기관·투자자)와의 협상, 자본 재조달, 구조조정
설계 등 “복합 금융 구조 문제 해결 역량”이 요구되는 상황과 부합
 - Grupa Azoty는 현재 CEO 교체와 함께 전사적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며,
비핵심 자산 정리(GA Polyolefins 매각) 부채 축소 및 재무 정상화, 비료
중심 핵심 사업 재집중 전략 병행
 - GA Polyolefins 사태는 단순 사업 실패가 아닌 그룹 존속을 좌우하는 재무
위기 요인으로, 거시경제·금융·정책을 아우르는 전문가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
 - 이에 따라 Rzońca 선임은 “대형 프로젝트 실패 리스크를 구조조정으로
전환하기 위한 금융·정책형 전문가 투입”이라는 점에서 필연적 인사로 평가됨
- **Balczun 장관, 방산·광업·화학 국영기업 구조개혁 의지 표명(3.20)**
- Wojciech Balczun 국유자산부 장관은 국영기업 정책 우선순위를 ▲안보
▲효율성 ▲즉흥적 의사결정 배제로 설정
 - 대통령의 SAFE(유럽 방위 투자 프로그램) 법안 거부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
대체 자원 조달(Plan B) 즉시 가동

- 대체 방안에서도 약 89%를 '로컬 콘텐츠'로 설정,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인 PGZ 중심의 국내 방산 생태계 지원 유지
 - 단, Plan B 전환 시 입찰 지연 및 경쟁력 약화 가능성 제기되나, 정부는 단기 내 계약 체결 가능성 강조
 - 방산 분야는 생산능력 확대, 국제 협력 및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
 - 광업 부문에서는 Jastrzębska Spółka Węglowa 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, 단기 유동성 지원과 병행한 구조개혁 추진을 언급
 - 폴란드 광업 전반(Polska Grupa Górnicza, Węglokoks Kraj 등)은 효율성 중심 구조조정 필요, 보조금 의존 구조를 탈피해야한다고 강조
 - 에너지 전환(재생에너지·가스 확대) 속에서도 석탄은 완전 퇴출이 아닌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
 - 화학 부문에서는 Grupa Azoty에 대해 공적 자본 투입을 포함한 구조개편 추진하겠다고 언급함
 - 정부는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“체계적 구조조정”을 강조하며, 투자 효율화 및 수익성 회복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강조
 - Balczun 장관은 특히 Grupa Azoty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(Polimery Police)의 과잉 투자 및 운영 문제를 핵심 리스크로 지적
 - 관련하여 Orlen 참여 가능성, 금융기관 협상, 시공사 분쟁 해결 등이 주요 변수라고 언급함
 - 향후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, 대형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임
 - 장기적으로는 기존 비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익 기반 핵심 사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 추진
 - 전반적으로 정부는 국영기업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 모델을 적용,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
- Orlen, 첫 해상풍력 'Baltic Power' 주요 구조물 설치 완료, 연내 발전 개시 전망(3.19)

- 폴 국영 에너지 기업 Orlen, 자국 최초 해상풍력 프로젝트 'Baltic Power'에서 터빈과 기초 구조물을 연결하는 전이부(transition pieces) 설치 완료
 - 해당 전이부는 총 78기의 모노파일(기초 구조물) 상부에 설치되며, 각 구조물은 길이 약 20m, 최대 350톤 규모로 터빈 및 해상변전소와 연결 역할 수행
 - 전이부에는 유지보수 인력 접근을 위한 갱웨이, 장비 운반용 크레인, 내부 전력 시스템 등 운영 설비도 포함
 - 주요 부품은 Żary, Niemodlin, Łęknica 등 폴란드 내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, 자국 철강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
 - 현재 해상 건설 현장에서는 약 20척의 선박이 투입되어 터빈, 해저 케이블 및 내부 전력망 설치 작업이 지속 진행 중
 - 지금까지 총 80척 이상의 선박과 약 4,500명의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사업으로 추진
 - 일부(30기 이상) 터빈 및 해상변전소 2기의 설치가 진행 중이며, 향후 시운전 및 계통 연계 시험 단계 예정
 - Baltic Power는 폴란드 북부 Choczewo·Łeba 인근 해상 약 23km 지점 (약 130km²)에 위치하며, 완공 시 연간 최대 4TWh 전력 생산(국내 수요의 약 3%) 규모
 - Orlen은 2026년 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면서도, 첫 전력 생산은 2026년 중 개시될 것으로 전망
 - 이번 전이부 설치 완료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이정표로, 폴란드 해상풍력 산업 본격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상징적 진전으로 평가됨
- 폴 ECO 그룹, 타르노브제크 가스 열병합발전 설비 가동 개시(3.19)
- 폴 열에너지 기업 Energetyka Ciepna Opolszczyzny(ECO) 그룹, 타르노브제크(Tarnobrzeg)에 가스 엔진 기반 열병합발전(CHP) 설비 신규 가동
 - 신규 설비는 Caterpillar 가스엔진 기반 총 4기 발전기로 구성되며, 전력 약 8MWe, 열 7.6MWt 생산 규모로 지역 내 전력·난방 동시 공급 가능

- 총 투자비는 약 54백만 즈워티로, 환경보호은행(BOŚ) 투자대출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ECO Kogeneracja가 사업 수행
 - 동 설비는 ECO 그룹의 타르노브제크 내 두 번째 열병합 시스템으로, 시공은 Bergerat Monnoyeur(구 Eneria)가 담당
 -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6월 열병합 경매에서 낙찰되어 보조금 지원을 확보했으며, 최초 전력 생산 시점부터 15년간 지원 적용 예정
 - ECO 그룹은 오폴레, 말보르크, 쿠트노, 엘레니아구라, 타르노브제크 등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며, 현재 8개 지역에서 총 24기의 가스엔진 기반 열병합 설비 보유
 - 자회사 ECO Serwis(설비 유지·보수), ECO Logistyka(연료 공급), ECO Kogeneracja(열병합 설비 개발·운영)를 중심으로 통합 에너지 사업 구조 구축
 - 이번 투자는 고효율 분산형 에너지 생산 확대와 지역 난방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며,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스 기반 열병합의 역할 확대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됨
- **Amazon, 폴에 50억 유로 추가 투자 및 물류 인프라 확대 계획 발표(3.19)**
- 아마존은 2026~2028년 기간 동안 폴란드에 50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, 2012~2025년 기존 투자(100억 유로 이상)에 추가되는 대규모 투자
 - 투자 목적은 물류 인프라 확장, 기술 개발, 중소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생태계 강화
 - 폴란드는 경제 성장, 기술 역량,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럽 내 전략적 핵심 시장으로 평가
 - 폴란드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5년 약 215억 유로 규모(+6.8% 성장), 2026년에도 약 7% 성장 지속 전망
 - 전체 소비자의 약 75%가 월 1회 이상 온라인 쇼핑 이용하며, 71%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아마존은 2021년 폴란드 시장 진출 이후 Allegro에 이어 2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

- 주요 투자 중 하나로 돌브로미에시(Dobromierz)에 신규 물류센터 건설 계획(약 20만m² 규모, 5,000대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)
- 신규 센터 포함 시 폴란드 내 아마존 물류 센터는 총 12개로 확대, 물류 처리 능력 및 배송 효율성 강화 기대
- 현지 결제수단 BLIK 도입 등 로컬 맞춤형 서비스 확대 병행
- 투자 확대는 폴란드의 유럽 물류 허브 역할 강화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성장 기반 구축 목적
- 아마존은 향후 폴란드의 글로벌 경제 내 위상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전략적 의지 표명
- 이번 투자는 폴란드 전자상거래 및 물류 인프라 고도화와 함께 중장기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됨

○ Grupa Azoty Polyolefins 노조, 경영 불안·구조조정 위기 경고(3.23)

- Grupa Azoty 산하 Zakłady Chemiczne "Police"에서 노조가 경영진 붕괴와 의사결정 혼란을 지적하며 정부 개입을 촉구
- 노조(NSZZ "Solidarność" 등)는 투스크 총리와 중앙·지방정부에 서한을 보내, 현재의 경영 및 지배구조가 기업 존속과 지역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
- 2월 12일 CEO Andrzej Dawidowski 사임 이후, 3월에는 부사장 2명 (Paweł Oleksy, Artur Błażej)도 잇따라 퇴진하며 경영진 공백 심화, 현재 이사회에는 직원 대표 1인만 남은 상태
- 신규 CEO 선임이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나, 이사회 보강 요구는 감독이사회 및 대주주 측에서 아직 대응하지 않은 상황
- 최근 수년간 구조조정으로 약 900명 이상 감원 진행, 2024년에는 단체협약 일부 중단 및 약 30% 수준 임금 삭감이 시행되었으며, 저임금 문제로 인력 이탈 가속화
- 핵심 투자 프로젝트 'Polimery Police'는 총 70억 즈워티 이상 투입됐으나 자금 부족과 기술 문제로 2025년 6월 이후 폴리프로필렌 생산 중단 상태
- 해당 프로젝트는 수익 즈워티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, 현재 매각이

추진중인 상황으로, 국영 기업 Orlen 이 약 10억 즈워티 이상에 인수 의향을 보인 상황

- 다만 자회사 Grupa Azoty Polyolefins의 미수금(약 60억 즈워티)이 남아 있어, 매각 이후에도 모회사 및 Police 공장에 재무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 제기
- 노조는 Polimery 매각 시 부채 처리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우려하며, 특히 잔존 부채가 현장 사업장에 전가될 가능성을 핵심 리스크로 지적
- 이번 사안은 폴란드 대표 화학기업의 지배구조 불안, 대규모 투자 실패, 국영기업 간 자산 재편 가능성이 맞물린 사례로, 향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및 정부 개입 확대 여부에 주목 필요

○ Grupa Azoty Police, 신규 경영진 선임(3.24)

- Grupa Azoty 산하 Zakłady Chemiczne "Police"에서 감독이사회가 신규 경영진을 임명하며 조직 안정화 조치 단행
- Małgorzata Królak를 경영이사회 회장으로 선임, 4월 1일부터 공식 취임 예정
- Królak는 구조조정·투자·전환 분야에서 산업 조직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Grupa Azoty 부회장으로 R&D·기술·투자·원자재 조달 등 핵심 운영을 총괄
- 또한 Grupa Azoty Polyolefins 관리 경험 및 대리인 역할을 통해 Police 공장 운영에 대한 이해도 보유
- Dominik Nowak를 재무 담당 부회장으로 3월 24일부 임명, 국제 산업 기업에서 재무·경영관리·투자관리 20년 이상 경력 보유
- Nowak는 재무 구조 구축, 조직 전환 및 사업 최적화 지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수행 경험 보유
- 현 경영이사회는 3인 체제로, 직원 선출 이사 Wiesław Muskała(2025.4.28 임명) 포함
- 회사 측은 이번 인사가 Grupa Azoty 전반의 경영 강화 및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

- Zakłady Chemiczne "Police"는 Grupa Azoty 그룹 핵심 계열사로, 복합비료 및 이산화티타늄 등 화학제품 생산 담당
- 이번 인사는 Polimery Police 투자 부진 및 재무 악화 상황 속에서 경영 정상화 및 구조 재정비 의도로 해석됨

○ Polimery Police 위기 관련 폴란드 정치 갈등 심화(3.23)

-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투자 프로젝트인 Polimery Police를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며 법적 대응으로 확산
- 법과 정의당(PiS) 의원들은 회사 경영진 및 집권 연정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부실 경영 및 회사 손해 유발 혐의로 검찰에 고발
- 고발장은 총 66페이지 분량으로, 공장 설비 미수리, 서비스 계약 종료 등으로 장기간 생산 중단을 초래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
- 해당 사안은 국가안보국(ABW), 중앙반부패국(CBA), 최고감사원(NIK) 등 주요 기관에도 동시 통보
- Polimery Police 공장은 약 60억 즈워티 이상이 투입된 유럽 최대 수준의 프로필렌·폴리프로필렌 생산 시설이나, 설비 결함으로 8~9개월 이상 가동 중단 상태
- PiS 측은 현 상황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조치이며, 정부와 경영진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
- 반면 집권 연정은 문제의 원인을 이전 PiS 정부의 과도한 투자 결정에 있다고 반박하며, 국영기업 간 중복 투자(Orlen 공장과 경쟁 구조)를 구조적 문제로 지적
- 투자 프로젝트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, 생산 재개를 위해 수억 즈워티 추가 자금이 필요하나 현재 재원 부족 상태
- 해결 방안으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논의 중이며, Orlen이 약 10억 즈워티 규모 인수 제안을 제시하고 Grupa Azoty도 유사 조건의 역제안 제출
- 양측 제안 모두 부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며, 거래 완료 목표 시점은 6월 30일로 설정
- 정부는 공장 파산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영 산업 유지 의지를 표명한

반면, 향후 투자 구조 및 자산 재편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

- 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대규모 국책 투자 실패 논쟁, 정치적 책임 공방, 국영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평가됨

○ **Mostostal Warszawa, 190백만 즈워티 규모 우회도로 건설 사업 선정(3.25)**

- 폴 국가도로청(GDDKiA), 마조비에츠키에주 내 즈볼렌(Zwolen) 우회도로 건설사업 시공사로 Mostostal Warszawa 선정
- 해당 사업은 폴란드 정부 '100개 우회도로 건설 프로그램'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9개 사업 중 네 번째 프로젝트에 해당
- 총 사업 규모는 약 10km 길이의 국도 79호선(DK79) 우회도로 건설로, 사업비는 약 190백만 즈워티 수준이며 즈볼렌 동측을 우회하는 신규 왕복 2차선 도로로 조성될 예정
- 2026년 2분기 계약 체결이 예상되며, 이후 기존 도로 구간 정비(3개월) 및 본공사(39개월)를 포함해 전체 사업은 2030년 완료 목표
- 사업에는 계획 중인 S12 고속도로와의 연계 교차로 및 기존 DK79, DK12,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구축이 포함되어 지역 교통망 통합성 강화
- 동 사업은 도심 통과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혼잡 및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, 주민 안전성 개선과 함께 향후 광역 물류 흐름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○ **CPK, Katowice - 체코 국제 철도노선 사업에 EU 보조금 확보(3.24)**

- CPK, 카토비체 - 체코 국경 구간 고속철도 사전설계 작업에 대해 EU 보조금 175만 유로 확보
- 해당 보조금은 CPK가 자체 자금으로 사업 비용을 선지출하면, 사업의 EU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'Connecting Europe Facility(CEF)' 재원으로 해당 비용의 약 50%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급됨
- 해당 노선은 Katowice에서 체코 Ostrava까지 연결되며, 향후 국제 고속철 네트워크의 핵심 구간으로 기능

- 사업 완료 시 Warsaw - Vienna 약 4시간 20분, Katowice - Vienna 약 2시간 20분, Katowice - Prague 약 2시간 30분 이동 가능 전망
- 노선 설계 최고 운행속도는 250km/h 수준으로, 중부·동유럽 주요 도시(프라하·빈·브라티슬라바·부다페스트) 연결 강화 기대
- 폴란드 내 약 60km 구간 건설을 통해 실레시아 주 내 지역 교통 개선 및 주요 도시 접근성 대폭 향상 전망
 - Katowice - Żory: 90분 → 20분
 - Katowice - Rybnik: 45분 → 24분
 - Katowice - Jastrzębie-Zdrój: 철도 미연결 → 35분
- 동 사업은 공항·철도·도로를 통합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신공항 'Port Polska'의 일환으로 추진
- 2032년 바르샤바 - 우치 고속철(약 130km) 개통, 2035년 포즈난·브로츠와프 연장 구간 완공 목표(최고 300~320km/h)
- 신공항 Port Polska는 2026년 착공, 2032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

○ 폴란드, 국책은행 BGK 통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(3.26)

- 폴란드 국책은행 Bank Gospodarstwa Krajowego(BGK), 국가재건 계획(KPO) 재원을 활용해 총 350백만 즈워티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지원
- 프랑스계 재생에너지 기업 Qair Polska와 대출 계약 체결, 풍력 1건 및 태양광 2건 등 총 3개 프로젝트 건설 자금 조달
- 투자 대상은 돌니실롱스크주 옌코보(Jenkowo) 풍력단지(18MW, 터빈 5기) 및 쿠야비포모제주 그루지옹츠(105MW), 마조비에츠키에주 비에르지비차(80MW) 태양광 발전소
- 착공 일정은 풍력(2026년 5월), 비에르지비차 태양광(2026년 6월), 그루지옹츠 태양광(2028년) 순으로 단계적 추진
- 이번 투자로 Qair 운영 용량은 기존 550MW에서 760MW 이상으로 확대되며, 2030년까지 3GW 달성 목표와 연계
- 재원은 BGK 에너지지원기금(Energy Support Fund)에서 조달되며,

해당 기금은 총 670억 즈워티 규모(이 중 약 70억 즈워티가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배정)

- BGK는 현재까지 동 기금을 통해 610억 즈워티 이상의 금융 계약 체결, Qair Polska는 다섯 번째 수혜 기업
- Qair는 폴란드 내 약 95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(총 560MW 이상)를 보유·운영 중이며, 기업 대상 장기 전력구매계약(PPA) 사업도 병행
- 본 사업은 풍력·태양광 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구성 다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이행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○ 폴 첫 원전 건설에 400개 기업 참여 및 10억 즈워티 계약 체결(3.25)

- 폴 국영 원자력 발전기업 PEJ,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400여 개 기업과 총 10억 즈워티 규모 계약 체결
- 전체 프로젝트에서 폴란드 산업 참여 비중은 40~50% 수준 목표로, 국내 기업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 확보 목적
- 발전소는 포메라니아주 Lubiatowo-Kopalino 지역에 건설 예정이며 美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의 AP1000 기술을 적용한 3기 원자로로 구성, 2028년 착공 계획
- 향후 10년간 발전소 건설비는 1,600억 즈워티 이상, 관련 인프라 포함 시 약 2,000억 즈워티 규모로 폴란드 최대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
- 핵심 참여 기업은 ZKS Ferrum, Famak Kluczbork, Energomontaż-Północ Gdynia, Mostostal Siedlce, Mostostal Kraków, Mostostal Kielce로, 원전 품질 기준(NQA-1) 1단계 절차 진행 및 기술·설계·설비 건설 분야 협력 추진
- 포메라니아 지역 기업과 70건 이상, 약 3억 즈워티 규모 계약 체결 등 지역 산업 참여 확대 진행 중이며, 향후 투자 확대 시 지역경제 과급효과 기대
- Arabelle Solutions 등 해외 기업도 터빈, 발전기 및 보조 설비 공급 형태로 프로젝트 참여

- 폴란드 기업 다수는 기존 화력발전 프로젝트 경험(약 75%)을 보유하나 원전 경험은 제한적(약 29%)으로,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기술 및 인력 역량 확보 추진
- 정부 목표(40%)를 상회해 최대 50% 수준까지 국내 산업 참여 확대 가능성 제시, 설계 단계부터 로컬 콘텐츠 비중 극대화 전략 추진 중
- 본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 제고,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됨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, 1.6만㎡ 규모 쇼핑몰 건설 및 글로벌 유통업체 매장 리노베이션 추진(3.16)
 - 우크라이나 부코비나(Bukovyna) 지역 체르니우치에서 현대식 쇼핑·엔터테인먼트센터 Tera Hall 건설이 시작되었으며, 2028년 3분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
 - 쇼핑몰 총면적은 약 16,150㎡이며 이 중 11,600㎡가 소매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
 - 주요 입점 업체는 대형 슈퍼마켓 브랜드 Silpo와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시설 Krayina Mriy가 입점 예정이며, 의류·신발·가전·생활용품·보석·서적·문구 등 다양한 소비 매장이 입점할 계획
 - 예상 방문객 수는 평일 약 1만 명, 주말 1.3~1.4만 명 수준으로 전망
 -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부분 자가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며, 약 240면 규모 주차장과 1,500명 수용 가능한 대피시설도 함께 조성 예정
 - 한편 덴마크 가구·생활용품 체인 JYSK는 체르니우치 Maidan 쇼핑센터 매장을 리노베이션하여 가구 및 홈데코 제품 라인업을 확대
 - JYSK는 이와 함께 체르카시 DEPO't 쇼핑센터 매장 재개장을 완료했으며, 폴타바 및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 신규 프로젝트도 추진 중
 - 이번 개발 및 리테일 확장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지방

도시에서의 소비시장 회복과 유통 인프라 확장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
○ **키이우주, 3.5억 흐리우냐 투자 금속가공 산업단지 조성 추진(3.16)**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키이우주 빌라체르크바(Bila Tserkva) 지역에 금속가공 산업단지 'Steel Kyiv Region' 조성 계획을 공식 등록
- 해당 산업단지는 약 12헥타르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, 금속가공 관련 기업을 집적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
- 프로젝트는 금속가공 기업 Grandsteel이 주도하며, 총 투자 규모는 약 35억 흐리우냐(약 78백만 달러)로 예상
- 산업단지에는 금속 부품 기계가공, 단조·프레스·스탬핑, 금속 프로파일링, 금속 구조물 및 제품 제조 등 다양한 금속가공 산업 기업이 입주 예정
- 또한 금속 완제품 및 기타 금속 제품 생산 기업도 유치해 금속가공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
- 본 프로젝트를 통해 약 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, 사업 재원은 사업 추진 기업 자금,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프로그램, 입주 기업 투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
- 종합적으로 이번 산업단지 조성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금속가공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됨

○ **우, 독일 KfW와 협력한 'Industrial Ramstein' 프로그램 출범(3.17)**

- 우 정부, 독일 국책은행 KfW의 재건신용기관 및 주우크라이나 독일 대사관과 협력해 전쟁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Industrial Ramstein 프로그램 출범
- 본 프로그램은 EU 통합형 산업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며, 우크라이나-독일 장기 경제 협력과 대규모 산업 현대화 기회 제공
- 2026년 4월 우크라이나 국가개발청(NDA)을 통해 KfW와 초기 30백만 유로 규모 협약 체결 예정

- 본 프로그램은 보조금, 저리 대출, 보증 등 KfW 금융 수단을 활용해 생산 복구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 지원
 - NDA는 중소기업(SME) 금융 접근성 강화 및 민간 금융기관 투자 촉진 계획 추진
 - 2026~2030년 NDA를 통해 13억 유로 조성,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SME 금융 프로그램에 33억 유로 투자
 - 2026~2027년에는 EU 지원 140백만 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 조성 예정
 - 해당 프로그램은 전쟁 피해 기업 재건을 통한 경제 안정성과 EU 연계 산업 생태계 복원, 유럽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
- CEB, 우크라 주택·중소기업 지원 위해 120백만 유로 승인(3.18)
- CEB(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)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총 120백만 유로 규모 신규 금융지원 패키지 승인
 - 지원금은 ▲주택 재건 프로그램(HOME) 1억 유로 ▲소상공인·소규모 농가 지원 20백만 유로로 구성
 - HOME 프로그램은 러시아 전면 침공으로 파괴된 주택에 대해 보상 및 신규 주택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
 - 추가 자금 투입으로 약 3,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프로그램은 2028년 6월까지 연장 예정
 - 기존 2억 유로 지원을 통해 이미 약 3,774채 주택이 확보되고 13,000명 이상이 주거 지원을 받은 바 있음
 - 2026년 초 기준 약 98,000건 이상의 주택 보상 신청이 접수되어 재건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
 - 20백만 유로 규모 중소기업·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국립개발기관을 통해 시행되며, 은행·신용조합을 통해 자금 공급
 -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▲전쟁 피해 기업 ▲국내실향민(IDPs) ▲참전용사 ▲여성·청년 창업가 ▲장애인 ▲소규모 농가 등
 - 재원 구조는 CEB 대출(20백만 유로), EU 보조금(4.6백만 유로), 기술

지원 23만 유로, 환리스크 보전용(3백만 유로) 보조금 포함

- 전체 자금의 최소 50%는 취약계층에, 30%는 에너지 효율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에 배분 예정
- 우크라이나는 2023년 CEB 가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0백만 유로 이상 지원 승인
- 지원 분야는 주택 재건, 보건 시스템, 국내실향민 지원, 중소기업 육성 등 사회·경제 전반에 걸쳐 있음
- 한편, CEB 회의에서는 Carlo Monticelli 총재가 연임(5년)되었으며,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및 경제 회복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 재확인
- 종합적으로, 이번 금융지원은 전후 주거 안정과 민간경제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패키지로, 취약계층 보호 및 지속가능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

○ 우, 6번째 바이오메탄 플랜트 가동, 역내 생산능력 2배 확대(3.18)

- 우크라이나 Teofipol Energy Company, 신규 바이오메탄 생산 플랜트 가동 개시로 전체 산업 생산능력 약 1.06억m³/년 수준으로 확대
- 신규 설비는 연간 5,600만m³ 생산 규모로, 기존 설비 대비 단일 최대 규모 프로젝트에 해당
- 특히 해당 플랜트는 기존 지역 배관망이 아닌 국가 가스 수송망에 직접 연결된 것이 특징으로, 수출 연계 가능성 확대
- 이번 가동으로 우크라이나 내 바이오메탄 생산 기업은 총 6개로 증가했으며, 2026년 중 7번째 설비 추가 가동도 예상
- 생산되는 바이오메탄은 EU 기준을 충족하여 향후 유럽 시장 수출 기반 확보
-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부터 바이오메탄 산업 육성을 추진해왔으며, 2050년까지 연간 200억m³ 생산 목표 설정
- 해당 목표 달성 시 자국 천연가스 수요 대체가 가능하나, 약 400억 유로 규모 투자 필요
- 이번 설비 가동은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대유럽 에너지 수출 확대

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

○ **Krasyliv Technoport 산업단지, 독일 투자 4.5백만 유로 유치(3.19)**

-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(Khmelnytskyi) 지역 Krasyliv Technoport 산업 단지가 독일 Goldhofer AG로부터 첫 해외 산업투자 확보
- Goldhofer AG는 대형 화물 운송용 세미트레일러 부품 생산을 시작했으며, 현재 직원 36명(주로 용접공) 근무, 월 7~8대 생산 후 독일로 수출
- 투자 총액은 4.5백만 유로이며, 이 중 1.5백만 유로는 이미 투입됨
- 단지 관리 회사는 폴란드 Modular사와도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, 금속 구조 기반 모듈형 주거·상업용 건물 생산 계획
- 우크라이나 기업 Aton Energy는 고체연료 보일러용 열교환기 생산을 개시했으며, 차기 단계로 벽걸이형 가스보일러 생산 설비 도입 예정
- 단지는 'Made in Ukraine' 정책 하에서 엔지니어링 및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-민간 공동 지원금(최대 UAH 1.5억 지원, 50:50 비율) 지원 신청 준비 중
- Krasyliv Technoport는 2023년 기존 Krasyliv 기계공장 부지 일부를 활용해 설립, 총 면적 10.1ha, 산업용 건물 8,000m² 이상, 8MW 전력, 상수도, 하수, 가스, 철도 연결 등 인프라 갖춤
- 이번 투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의 상징적 사례로,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제조업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

○ **우, URP III 추가 인프라 사업 선정 및 자금 지원 추진(3.20)**

- 우 지역영토개발부는 EIB 차관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복구 프로그램 (URP) III 대상 신규 프로젝트 추가 선정
- 개발부 Riabykin 차관이 주재한 전문가 집단 실무회의를 통해 총 13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권고
- 지역별로 ▲자카르파티아 2건(유치원·학교 재건) ▲리비우 6건(하수도·방호시설·병원·교육시설 개보수 등) ▲리우네 5건(의료시설·열공급·방공호 개보수 등) 선정

- 사업은 교육·보건·에너지·방호시설 등 지역 주민의 필수 생활 인프라 복구 및 개선에 중점
- 기존 승인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키이우, 이바노프란키우스크, 체르카시, 지토미르, 빈니차, 폴타바 등 다수 지역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
- 또한 자포리자, 도네츠크,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, 미콜라이우, 오데사, 수미, 하르키우, 체르니히우, 헤르손 등 전선 인접 지역에서 총 76개 프로젝트 별도 지원
- 사업 선정은 DREAM 디지털 플랫폼 기반 신청 → 지역 행정기관 평가 → 중앙정부·지자체·시민사회 참여 전문가 그룹 심사 → EIB 최종 승인 절차로 진행
- 정부는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지역 수요 기반 인프라 재건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
- 본 프로그램은 전후 복구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, 필수 공공서비스 정상화에 핵심 역할 수행할 것으로 평가됨

○ 이탈리아,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에 45백만 유로 배정(3.24)

- 이탈리아, 우크라이나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45백만 유로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공식 출범
- 프로그램 출범식은 키이우에서 개최되었으며, 우크라이나 사회정책부장관 Denys Uliutin, 주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대사 Carlo Formosa 및 양국·국제 NGO 관계자 다수 참석
- 동 프로그램은 사회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며, 전쟁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초점
- 주요 지원 내용
 - 취약계층 대상 직접 현금 지원(생계 안정 목적)
 -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
 - 전쟁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심리·정신건강 지원
 -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 접근성 개선
 - 국내 실향민(IDPs) 등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구축 및 운영

- 지원 대상은 전선 인접 지역 등 전쟁 피해가 집중된 지역 주민으로, 특히 아동·노약자·실향민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
 - 우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국가 사회보장체계와 연계되어 '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'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 자원 중복 방지 및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성 제기
 - 이번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의 대외 인도적 지원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,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안전망 복원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향후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집행 효율성을 제고 하고, 우크라이나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
- 폴·우, PKP Intercity - Ukrzaliznytsia 3년 협력 계약 체결(3.26)
- PKP Intercity, Ukrzaliznytsia와 3년간 협력 계약 체결, 계약 규모 약 179.5백만 즈워티(약 73억원)
 - 우크라이나 측이 폴란드 내 PKP Intercity 국제 열차 운행 지원 및 운송 서비스 제공
 - 운행 대상 구간은 바르샤바 - 프세우미시, 바르샤바 - 헤움 등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연결 국제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
 - 해당 노선 운행은 UZ 차량과 우크라이나 승무원 운영 방식으로 진행
 - 계약은 3월 5일 체결, 총 36개월 유효, 기술적 사유로 공개 입찰 없는 단독 협상 방식으로 진행, 폴 공공조달법(Public Procurement Law) 준수
 - 계약 세부 내용은 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, 기존 승객 서비스에는 변화 없음
 -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 국경 철도 교차점인 도로후스크(Dorohusk)에 신(新)터미널 건설 계획, 승객 체크인 이전 예정, 객차 내 여권 절차 생략 등으로 향후 열차 운행 일정 및 효율성에 영향 가능
 - 이번 협력은 폴란드 - 우크라이나 간 국제 철도 연결성 강화 및 운송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
- 우, EIB와 230백만 유로 규모 도로 인프라 복구 금융협정 체결(3.26)

-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, EIB와의 금융협정 비준 통해 총 230백만 유로 규모 도로 복구 재원 확보
- 동 자금은 리비우·오데사 지역 도로 보수 및 국경 검문소 진입도로 복구, 물류·수출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에 활용 예정
- 부총리 쿨레바에 따르면 'Solidarity Roads' 이니셔티브 1차 집행분은 134백만 유로 규모
- 주요 대상 노선은 Kyiv - Chop(M-06), Kyiv - Kovel - Yagodyn(M-07), Lviv - Shehyni(M-11), Odesa - Reni(M-15) 등 EU 연결 핵심 물류 회랑
- 전선 인접 지역 중심으로 최소 4,000km 도로 추가 복구·보강 필요
- 기록적 폭한으로 도로 손상이 심화되었으며, 주요 고속도로 피해 면적 약 23백만m², 2026년 내 약 21.5백만m² 도로 보수 추진 계획
- 본 사업은 TEN-T 네트워크 연계 강화, 물류 병목 완화, 교통 안전 개선 및 인도적·수출 화물 운송 효율 제고에 기여 예상

○ 우, EBRD 주도 재생에너지·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(3.26)

- EBRD, 2026년까지 1GW 이상 규모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(BESS)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추진
- 풍력 570MW, 태양광 240MW, 에너지저장 230MW 등 총 1GW 이상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 유치 계획
- 투자 활성화를 위해 EBRD와 World Bank 공동으로 'RAMP UP' 이니셔티브 출범, 재생에너지 수익 안정화 및 대규모 민간자본 유입 유도
- 관련 경매는 2026년 최초 시행 예정으로, 전력시장 정상화 이후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목적
- 한편, EBRD는 겨울철 전력난 대비를 위해 Kyiv에 총 2,200만 유로 지원 결정
- 이 중 20백만 유로는 120MW 규모 컨테이너형 열병합발전(cogeneration) 설비 구축을 위한 긴급 보조금으로, EU 'Repair, Rebuild, Restart' (총 9.2억 유로) 프로그램의 일환

- 추가로 207만 유로 규모 기술지원을 통해 키이우 지역난방 시스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
- 본 사업은 전시 상황 속 전력망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중장기적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 역 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 역 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2(304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6. 1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'26. 2월 태웅로직스 사업 철회

- (주요동향) 사업 파트너사(태웅로직스)의 불참 결정 및 기존 주주단 (DCI·Norfund·EBRD) 중심의 자본금 조달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, 현 시점에서 당사의 신규 지분 참여를 위한 객관적 수행 여건이 소멸된 상황임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
- (주요동향) 현지 SPC(GAP S. A.), 구조조정*을 위해 중재취하를 위한 협의 진행 중(→현대엔지니어링)
* 구조조정 요건 중 분쟁채권 15% 미만인 경우 '합의조정' 가능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비) 즈워티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'26. 1월 이사회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3월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투자계약 체결(KIND→ZEIT)
이사회 부의(자회사 설립), SPA 체결(KIND→ZEIT)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- (주요동향) '26년 3월 Phase II 잔여 부지(DC5동) 임대차 계약 체결
및 잠재 임차인 협상(DC3동 일부/ DC4동)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 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 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 •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
보리스 필 항등건 현대화 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 •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도 노선 고속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 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 • 현지 착수보고회 및 현장조사 수행 예정 ('25.3월)